

밤하늘의 친구 별아

작은 친구와 함께하는 포근한 이야기





밤하늘에 보라빛 별들이 조용히 춤추던 날, 흰 토끼 모리가 포근히 잠들었어요. 모리의 작은 방에 달빛이 살랑살랑 흐르며, 꿈결 같은 순간을 만들었지요.



모리의 꿈속엔 졸린 작은 별 하나가 폴짝 내려왔어요. 그 별은 반쯤 감긴 눈으로 빙글빙글 웃고 있었지요. "안녕, 내 이름은 별아야." 별이 가만히 속삭였어요.



"안녕, 모리야." 별아가 살짝 손을 흔들었어요. 모리는 폴짝 일어나 버들풀 사이를 뛰어갔어요. 풀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거리며 속삭였답니다.



모리와 별아는 밤하늘의 친구가 되었지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여긴 정말 멋져!" 모리가 기쁘게 외
쳤어요.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별아가 하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잘 자라, 모리야. 내 소중한 친구야." 작은 별의 따뜻한 인사가 별빛에 실려 있었답니다.



모리는 풀밭에 누워 별들을 세며 미소 지었어요. "별 하나, 별 둘,
친구별아." 발끝에서 노래하듯 속삭였어요.



별아가 남긴 작은 빛 조각이 모리의 손끝에 살며시 내려앉았어요. 부드러운 빛이 모리의 따뜻한 손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지요.



모리의 마음속엔 별아의 빛이 사르르 내려앉았어요. 밤이 깊어도
별님과 함께 웃으며 꿈을 꿉어요. "잘 자라, 작은 친구야. 오늘
밤도 별이 내 곁에 있습니다."

끝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별이 남길 바라요.

밤하늘의 친구 별아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